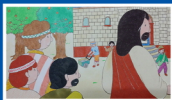


예루살렘 입성

-열네 번째 이야기-



91Page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인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92Page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대답하거라.”

제자들이 자기들의 겹옷을 그 등에 걸쳐 놓자 나귀의 등 위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93Page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며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맞으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발 밑에 깔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어요.

“호산나, 찬양을 받으세요!”

사람들은 마치 왕이 온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94Page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물렀어요.

“아!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시다. 곧 왕이 되실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을 돕는 장관이 될거야. 나도 한자리 할 수 있는거지? 히히”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95Page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성전을 향해 가셨어요.

성전에 도착한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장사꾼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